

보도시점 2026. 9. 10.(목) 조간
2026. 9. 9.(수) 12:00 배포

2026. 9. 9.(수)

자극적 보도 줄이고, 트라우마 예방한다 재난보도 이용자·생산자용 체크리스트 개발

- 국립정신건강센터, 재난보도 모니터링 도구 고도화 연구 결과 발표 -
- 기자데스크·언론사별 실천 항목 담은 재난보도 체크리스트 마련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남윤영)는 9월 10일(목), 「재난보도 모니터링 도구 고도화와 체크리스트 개발(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024년 「트라우마 예방관점 재난보도 현황조사(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후속 연구이다. 당시 연구가 재난 발생 당시 보도만을 연구 대상으로 다뤘다면, 이번 연구에서는 분석틀을 개선해 추모일 보도까지 점검 범위를 넓혔다. 또한 재난보도 이용자·생산자 점검표(체크리스트)를 개발해 2022년 제정된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을 취재 현장에 정착시키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위해 ▲추모일 등 중장기 재난보도 점검을 위한 분석틀 개정, ▲개선된 분석틀을 활용한 재난보도 내용 및 이미지·영상 분석, ▲분석 자료 기반 뉴스 이용자·생산자용 재난보도 체크리스트 개발, ▲재난보도 체크리스트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재난경험자(유가족), 일반인 및 언론인 대상 초점집단면접(FGI), 심층면접(인터뷰)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분석 결과, 재난 발생 직후에는 자극적 표현과 충격적 장면(최고 30.6%)이 가장 두드러진 문제였다면, 추모기에는 유가족의 오열·격한 감정을 여과 없이 담은 장면(최고 50%)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문제의 성격은 시점마다 달라지지만, 심각성은 줄어들지 않은 채 형태만 달라져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분석 대상: 12·29여객기참사(2024년), 경북·경남·울산초대형산불(2025년), 10·29이태원 참사 3주기(2025년), 12·29여객기참사 1주기(2025년)

재난보도 체크리스트는 취재 과정에 맞춰 ‘평상시 → 사건 발생 직전(투입 전) → 사건 발생 중(현장 취재) → 사건 발생 이후(보도·후속·복귀)’ 네 단계로 세분화하고, 각 항목의 수행 주체를 기자·데스크·언론사로 구분했다. 현장 기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대화 앱(메신저)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PDF 파일 형태로 제작할 예정이다. 뉴스 이용자를 위해서는 보도된 기사에 대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재고 요청 양식’도 개발했다.

연구 결과, 재난경험자(유가족)는 보도 내용 자체보다 동의 없는 촬영, 반복적인 개별 접촉(취재)을 더 큰 문제로 지적했다. 일반 이용자는 자극적인 보도가 뉴스 회피로 이어진다는 점, 후속 보도 부재로 시민적 관심이 저해된다는 점을 짚었다. 언론인들은 트라우마 관점 보도가 현장 실무 표준으로 정착하려면 구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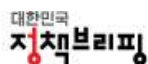
남윤영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재난 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도 양상이 변화하는 만큼 가이드라인도 세분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라며, "특히 추모일마다 재난경험자가 다시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현장의 기자와 데스크가 재난보도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난경험자에 대한 꾸준한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한 재난보도 문화 형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트라우마센터 누리집 자료실(<https://nc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재난보도 모니터링 도구화와 체크리스트 개발」 주요 결과

담당 부서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책임자	국가트라우마센터장 강등현 (02-2204-0115)
		담당자	연구원 최은비 (02-2204-0218)



붙임

「재난 보도 모니터링 도구화와 체크리스트 개발」 주요 결과

□ 내용분석 개요

- (분석 기간) 재난 기준일 기준 2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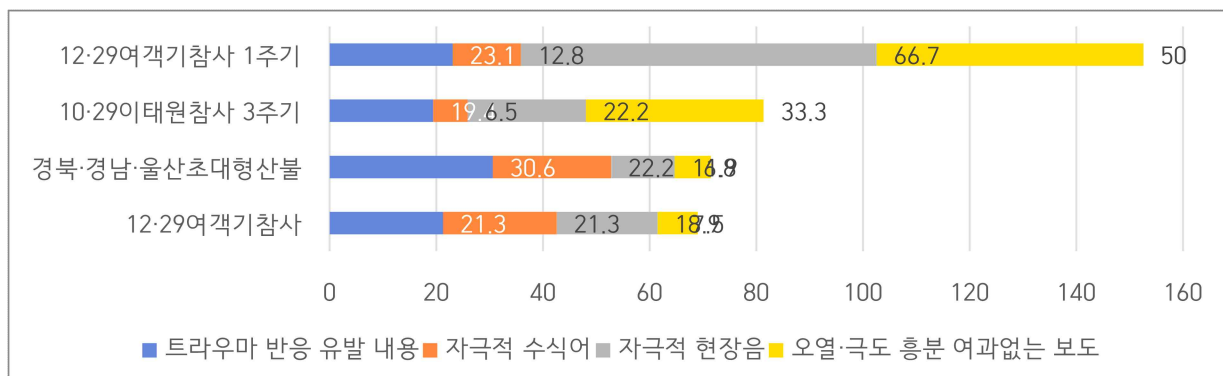
- (분석 매체) 총 8개 매체

·(신문)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방송) KBS, MBC, SBS

(단위: 개, %)

분석 대상	신문	방송	소계	비고
12·29여객기참사	97(29.8)	53(39.0)	150(32.5)	발생기
경북·경남·울산초대형산불	119(36.5)	61(44.9)	180(39.0)	발생기
10·29이태원참사 3주기	75(23.0)	18(13.2)	93(20.1)	추모기
12·29여객기참사 1주기	33(10.1)	6(4.4)	39(8.4)	추모기
합계	326(100.0)	136(100.0)	462(100.0)	

□ 재난별 트라우마 관점 문제 보도 비율(중복 가능)



□ 재난별 보도 영상 양상

재난	영상 수 (n=128)	군집 수	클러스터 내용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56개	3개	① 불에 타는 모습·연기 ② 인물 상반신 인터뷰 장면 ③ 타버린 집·산과 구조 헬기
12·29여객기 참사	49개	7개	① 추락한 비행기 및 잔해 ② 인물 상반신 장면(bust shot) ③ 합동분향소·구호물품 전경(full shot) ④ 사고 현장 배경 앵커·정치인 인터뷰 상반신 장면 ⑤ 비행기 없는 사고 현장 전경 ⑥ 인터뷰 장면 ⑦ CCTV 영상 분석
10·29이태원 참사 3주기	15개	5개	① 유가족·추모객 단체 장면 ② 유가족 얼굴 근접 장면(close up) ③ 그림·포스트잇 등 추모 관련 물건 ④ 대통령·유가족·관련자 인터뷰 및 앵커 상반신 장면 ⑤ 이태원 거리

재난	영상 수 (n=128)	군집 수	클러스터 내용
12·29여객기 참사 1주기	6개	4개	① 무안공항 근처 풍경 장면 ② 유가족 상반신 및 근접 장면 ③ 유가족·당사자 과거 사진 전경 ④ 휴대폰 화면 및 기타

* 클러스터 수가 적을수록 동일 유형의 화면이 반복 노출됐음을 뜻함. 표는 반복 노출 위험이 높은 순으로 배열

□ 뉴스 이용자(재난경험자, 일반인)를 위한 ‘재고 요청 양식’

※ 본 양식의 작성 과정에서 재난 경험의 회상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어려우신 경우 재난심리지원 전화(1577-0199)로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A. 대상 보도	매체명 / 기사 제목 / 보도 일시 / URL 또는 방송 시간대
B. 매체와 보도 시점	매체 유형: ☐ 신문 ☐ 방송 보도 시점: ☐ 발생기 ☐ 추모기
C. 문제 유형	복수 선택 가능
	☐ a.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 b. 자극적 장면·음향의 노출·반복
	☐ c. 자극적 표현·트라우마 유발 서술
	☐ d. 낙인·비난
	☐ e. 기타 ()
D. 문제 내용	해당 문장·장면·타임코드(방송의 경우 보도시간)를 특정하여 기술
E. 요청 사항	☐ 수정 ☐ 삭제 ☐ 보완 ☐ 기타 ()
F. 요청자 정보 (선택)	요청자 유형: ☐ 재난경험자 ☐ 시민단체 ☐ 일반 이용자 연락처(선택): 회신희망여부: ☐ 예 ☐ 아니오

* 문제 보도에 대한 개선 요청 용도 외에도, 이용자가 보도의 트라우마 유발 요소를 직관적으로 점검·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도 활용 가능

□ 재난보도 체크리스트

▶ 평상시 - 준비 단계

대상	분류	체크 항목	✓
데스크	교육	소속 기자 대상 트라우마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데스크	인프라	사내 심리상담센터 또는 외부 전문상담기관 협약을 체결하고, 기자들이 기밀유지 및 불이익 없이 심리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데스크	인프라	온라인 공격·명예훼손 발생 시 법률·행정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데스크	인프라	재난 유형별 필수용품(안전, 위생, 보호장비, 식수 등)을 구비한다.	
기자	교육	트라우마 예방 교육(트라우마 예방 가이드라인 포함)을 이수하고, 당사자 심리반응을 이해한다.	

▶ 사건 발생 - 투입 전

대상	분류	체크 항목	✓
데스크	상태평가	투입 기자의 과거 트라우마 경험·현재 스트레스·건강상태를 면담으로 확인한다.	
데스크	배치	2인 이상 편성 + 교대근무 계획을 수립한다.	
데스크	장비	상황별 안전용품(식수 등)·비상연락망·숙소·이동수단을 확보한다.	
기자	건강	현재 나의 신체·심리 상태가 현장 취재에 적합한지 점검하고, 데스크와 의논한다.	
기자	정보	재난현장 기본정보(위치, 규모, 위험요소)를 파악한다.	
기자	준비	파견 전 체크리스트를 확인한다. (건강, 가족돌봄, 물품, 일정, 환경점검)	

▶ 사건 발생 중 - 현장 취재

대상	분류	체크 항목	✓
데스크	자율성	현장 기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안전과 취재윤리가 특종보다 중요하다는 신뢰를 준다.	
데스크	모니터링	현장 기자의 신체·심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기자	사전조율	재난대책본부 또는 당사자 대표와 취재를 사전 조율한다	
기자	상태확인	취재원의 신체·심리 상태를 확인한 후 취재를 시작한다.	
기자	동의	신분을 밝히고 촬영계획 및 보도되는 범위(영상 및 발언 등)를 설명한 뒤 동의를 받는다.	
기자	상태확인	명함·무반응·진술 불일치·통제 어려운 신체반응 시 취재를 연기한다.	
기자	금지	성급한 위로를 하지 않는다. (× “다 이해한다”/ × “더 힘든 분도 있다”)	
기자	공감	차분한 어조로 질문하고 취재원의 발언을 경청하며, 대처를 위한 노력을 인정하고 격려한다.	
기자	금지	행동·감정 판단, 전문용어, 잘못된 정보,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지 않는다.	
기자	자기관리	가슴 두근거림이나 호흡 곤란 등 나 자신의 트라우마 반응을 점검하고, 필요시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다.	
기자	개입	심리적 조력이 필요해 보이는 취재원에게 재난심리지원기관(1577-0199)을 안내한다.	

▶ 사건 발생 이후 - 보도·후속취재·복귀

대상	분류	체크 항목	✓
데스크	복귀지원	취재 기자에게 충분한 휴식을 부여하고, 필요시 전문가 상담을 연결한다.	
기자	후속취재	당사자가 안정된 상태인지 확인 후 접촉하고, 다시 동의를 받는다.	
기자	후속취재	장소·시간·동반자를 당사자가 선택하도록 한다.	
기자	금지	원치 않는 재난 회상 반복 질문이나, 장면 연출을 하지 않는다.	
기자	후속취재	당사자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먼저 확인한다.	
기자	회복관점	피해뿐 아니라 복구 노력·회복 과정을 담는다.	
기자	자기관리	신체상태 및 정서상태를 아울러 스트레스 반응을 자가 모니터링하고, 3~4주 이상 지속 시 전문가 상담을 받는다.	
기자	동료지원	재난취재에 참가한 동료들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평소와 다른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기자	일상회복	수면관리·운동·감사일기 등 스트레스 감소 활동을 실천한다.	